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http://www.daegu.jubo.or.kr



자크 티소, 「과부의 헌금」(1886).  
수채,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

## † 오늘의 전례

“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마르 12,38-44 참조)

쓰고 남는 것, 없어도 되는 것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는 것은 은총으로만 가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제1독서** 1열왕 17,10-16 **제2독서** 히브 9,24-28 **복음** 마르 12,38-44 또는 12,41-44.

**입당송**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이영동 치릴로 신부 | 산자연중학교장

## 구원에 이르는 결산

산자연중학교의 가을은 풍성합니다. 그리고 바쁩니다. 자연이 결산을 해야 할 때이기에 그렇습니다. 자연히 자연의 결산에 동참하고 있는 산자연중학교 식구들도 풍성하고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붉어진 감을 따고, 고구마와 땅콩을 캐고, 콩을 수확해서 두드리고, 은행도 털고, 빨강계 물든 사과도 따니다. 자연의 섭리는 모든 것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찌웠던 것을 내놓습니다. 다 내놓습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냥 다 내놓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결산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달력으로 한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 성월도 보내고 있습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오면 우리도 많이 바쁩니다. 자연은 다 내어주는 결산을 하기 위해서 바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쁘나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결산을 해야 할까요?

오래 전에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께서 신부들에게 감자탕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해를 살고나면 통장잔고를 100만원 이하로 남긴답니다. 돈을 모아놓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쓴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 용기와 확신이 어디서 났을까? 다 지출해도 다음 해를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다 지출하는 것은 바보짓처럼 보입니다. ‘다음 해를 살려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다 쓰고 나면 어찌라고. 그런 무계획적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무대책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한다고.’

하지만 한해의 결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당황스럽게도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다 내놓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다 내어주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다 내놓는 것은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된 사람들입니다. 1독서의 사렙타 과부와 복음의 가난한 과부의 행동은 구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생각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다 내놓을 수는 없어도 언젠가는 다 내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놓는 연습 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다 내어주는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골로 3:23**

##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⑤

## 인간 존엄성의 원리2

###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의 원리

#### 1.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면...

2차 세계 대전 동안 나치 독일은 스무 개가 넘는 강제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유태인, 장애인, 정치범 등을 가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개는 절멸수용소(Vernichtungslager)라고 불리는, 대량 살상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에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지만, 갇힌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 대신 독가스를 살포하거나 독약 주사를 놓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잔인하거나 극악한 성격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간호사 중에서 엘프리데 로제노프라는 간호사는 지난날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종종 물어 봅니다. 그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에 동조할 수 있었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은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다 옳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가 불의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거부하겠다는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 간호사들을 취재해서 책을 쓴 언론인 에른스트 클레씨는 말합니다. “아마도 다른 환경에서였다면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에 살았더라면 범죄자가 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 놓이게 되면 이 모든 일들

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낮은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행동으로 옮겨 경쟁으로부터 뒤처지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몰아넣고, 소외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일들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 2. 인간 존엄성의 원리와 공동선의 원리

이렇듯 인간이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사는 데는 어떤 사회 안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공동선의 원리인데,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사목헌장 26항에서 말하듯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더 완전하고 더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생활상 여러 가지 조건들의 총체를 말합니다. 누구나 자기 “개인 인격의 고귀한 존엄성”(사목헌장 26)을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엄성 뿐만 아니라 모두가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인간 존엄성의 원리와 공동선의 원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필문**



이달의 성인

# 성녀 제르트루다

(1256-1302, 수녀, 신비가, 신학자, 축일 : 11월 16일)



성녀께서는 다섯 살에 베네딕토회 소속 수녀원인 헬프타의 성 마리아 수녀원 학교에 입학해 교육을 받고 수녀회에 입회하셨습니다.

타고난 지능과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문학, 철학, 예술 등 다방면에 능통하셨던 성녀께서는 세속적인 학문과 지성에 심취하여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극도의 영적 고통을 겪게 되셨습니다.

스물여섯 살이 되던 해, 예수님의 발현을 체험하게 된 제르트루다 성녀께서는 그 후 다른 학문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례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성녀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성심(聖心)을 깊이 공경하신 최초의 인물로 ‘예수 성심의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또한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와 비교하여 ‘독일의 테레사’라고도 불립니다.

성녀께서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항상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셨으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촉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발현하시어 매일 미사를 바친 후 당신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바칠 때마다 1,000명의 연옥 영혼을 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연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온 세상 교회에 있는 죄인들과 내 집안과 내 가정 안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 온 세상에서 드리는 모든 미사 성제와 더불어 당신 성자 예수의 가장 값진 피를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아멘.’ **빛과 소금**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 노래로 세상을 울린 못난이 아줌마

영국의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탈렌트> 무대 위로 한 중년의 여성이 올라섰습니다. 작은 키에 뚱뚱한 몸매, 못생긴 얼굴의 아줌마는 심사위원과 관중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비웃음과 야유 속에서 레미제라블의 삽입곡 “I dreamed a dream”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관객들은 그녀의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끝났을 때는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고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영국 전역에 생중계 된 프로그램 덕분에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된 마흔 여덟의 시골아줌마 수잔 보일. 그녀의 집 앞에는 팬레터가 무수히 쌓였고 그녀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잠시 갑작스런 관심과 기대가 불안해 지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의 반응은 한 순간에 뒤바뀌어 반짝 스타라고 매도하기 시작했고 온갖 조소와 비난이 이어졌습

니다. 갑자기 하늘을 날다 추락해버린 듯 한 그녀는 지독한 우울 증세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사이먼사에서 그녀의 앨범을 기획하면서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만 230만장이란 단기간 최고 발매량을 기록하였고, 2009년 유튜브 최고 스타로 선정 되면서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다. 믿음은 내 마음 속 깊숙이 힘을 심어줬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궤본**

금주의 성인

11월 8일	성 고데프리도(주교, 아미앵, 1070~1115년), 성 테우스테디트(교황, 618년) 성 마우로(주교, 베르됭, 383년), 성 클라로(신부, 은수자, 마르무티에, 397년) 성 키베(수도원장, 6세기경), 성 티실리오(수도원장, 웨일스, 7세기경)
11월 9일	성 베니노(주교, 아일랜드, 467년), 성녀 소파트라(동정녀, 7세기경) 성 테오도로(군인, 순교자, 아마세아, 319년경)
11월 10일	성녀 님파(동정 순교자), 성 레오 1세(교황, 교회학자, 461년), 성 트리폰(동정 순교자) 성 레스피치오(순교자), 성 안드레아 아벨리노(신부, 1521~1608년)
11월 11일	성 마르티노(주교, 투르, 316~397년), 성 멘나(군인, 순교자, 이집트, 303년) 성 바르톨로메오(수도원장, 그로타페라타, 1055년)
11월 12일	성 닐로(저술가, 안키라, 430년), 성 마카르(주교, 애버딘, 6세기경) 성 쿠니베르토(주교, 쾰른, 663년), 성 쿠미아노(수도원장, 590~665년)
11월 13일	성 니콜라오 1세(교황, 867년), 성녀 막셀렌다(동정 순교자, 코드리, 670년경) 성 브리시오(주교, 투르, 444년), 성 아르카디오(순교자, 437년) 성 아보(수도원장, 플뢰리, 945~1004년), 성녀 엔나타(동정 순교자, 297년)
11월 14일	성 두브리치오(수도승, 주교 란다프, 545년경), 성 라우렌시오 오톨(주교, 더블린, 1128~1180년) 성녀 베네란다(동정 순교자, 갈리아, 2세기경), 성 베네란도(순교자, 트루아, 275년) 성 세라피온(순교자, 알제, 1240년), 성 필로메노(순교자)



###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피정 파견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0월 26일(월) 오후 3시 30분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에서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피정' 파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 ■ 제34차 한국미바회 미사



제34차 한국미바회 미사가 10월 29일(목)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대전교구장 유흥식(라자로) 주교님과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 이문희(바울로) 대주교님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다.



###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 45주간, 2015. 11. 8. ~ 11. 14. >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루카23-24장	요한1-3장	4-5장	6-7장	8-10장	11-12장	13-16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요한 복음서』

- ① 선재(先在)사상 :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시던 분이요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의 창조에 직접 참여하신 분으로 드러난다.(1,1-3)
- ② 당신 스스로 계시 : 메시아 신분을 감추는 공관복음과는 달리, 처음부터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하느님의 고유한 특권을 행사하십시오 당신의 정체와 신원을 명백하게 밝히신다.
- ③ 예수님의 사명 :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키우시는 일이야말로 하느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다.(3,16-17 참조)
- ④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 기적은 곧 표징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고 소개한다.
- ⑤ 성령과의 관계 :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증언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이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 정성이 중요해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안내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피정)	11월 9일(월)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9일(월) 11:00 죽도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9일(월) 11:00 계산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9일(월) 11:30 범어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9일(월) 11:00 황성성당	수능기원미사	11월 10일(화) 11:00 성모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9일(월) 11:00 신평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1월 11일(수) 19:30 교구청 별관 302호

## 대리구 소식

### 라우다떼합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11.13(금) 20:00, 계산성당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등  
문의: 4대리구청, (054)275-0610

## 성소 | 피정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1.14(토)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수녀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 산내 치유 피정

산내 치유 피정: 11.17(화)~18(수)  
시니어 피정: 11.24(화)~25(수)  
장소: 효령 하늘집(선착순 10명)  
문의: 동천성당, 326-5004

### 11월 한티 힐링 피정

기간: 11.21(토)~22(일)  
주제: 외딴곳에서 좀 쉬자  
지도: 여영환(오토) 신부  
문의: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 천호성지-요한복음 통독 피정

기간: 11.28(토)~29(일), 김훈 신부

장소: 천호성지 피정의집  
신청: (063)263-1004~5

## 교육 | 모집

### 11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11.14(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서로 사랑하여라  
강사: 황창연(베네딕도)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 2016년도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 11.2(월)~13(금)  
문의: 850-3583(일반대학원)  
850-3505(교육대학원)  
<http://www.cu.ac.kr>

### 2016 전기 대구가톨릭대 특수대학원생 모집

접수: 11.2(월)~13(금)  
신설: 예술복지예술치료, 사회적경제, 서비스경영, 화학물질독성평가, 오르간반주  
문의: 660-5511~3(특수)  
<http://spgr.cu.ac.kr>

### 오순절평화의마음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화) 23:00~(수)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20:30  
수성구청 앞: 21:00  
문의: 김명옥, (010)5529-3186

###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6차)

일시: 11.26(목)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요통과 관절염의 비수술적 재활치료  
강사: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 제47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6~2.12(3, 5주 선택)  
대·일반: 1.3~2.14(6주, 장기 선택)  
세계 학생들과 함께 수업  
문의: 그린피스 이엔티, (02)3446-4253

### 김길수 교수와 함께하는 성지 순례

일본 4박 5일 성지 순례, 58만 원  
문의: 천주교사도직회(팔로티회)  
(010)4239-1929

###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레임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텍시도대여 | 베이킹 · 헤어디자인  
김 대 현(프란치스코)  
☎ 053)424-7777 | 010-2112-8236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분도의 항방을 기름이 내일을 만드는  
정직한 분도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053)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 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 · 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동 새마을금고 옆  
신매역 3번 출구(천주상심병원 방향)  
김경일(마네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월 10일(화)은  
(故) 박춘택(베드로) 신부  
선종 10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11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1.15(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고3 및 수험생을 위한 피정**

기간: 11.28(토) 14:00~29(일) 17:30  
장소: 청통수련원(개별 이동)  
주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묵시 3,21)  
마감: 11.16(월) / 신청순 110명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제7회 교구 성경암송 발표대회**

일시: 11.21(토) 14:00~17:3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주최: 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담당  
문의: 250-3082

**제4회 대구가톨릭미술가회전**

기간: 11.3(화)~13(금)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남대영기념관  
문의: 629-1117

**교육 | 모집**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11.8(일) 15:00 / 회비: 1만 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본리성당 제5회 성체신심세미나**

기간: 11.10(화)~13(금) 20:00~22:00

11.17(화) 20:00~22:00 (11.15 봉헌식)  
신청: 본리성당, 526-8333

**2016년 CPE와 PCE 교육생 모집**

기간: 봄, 여름, 가을 학기  
대상: 내적치유, 영적돌봄에 관심이 있는 분  
교육비: 75만 원(주 8시간, 총 16주간)  
주최: 대구대교구-성바오로CPE센터  
신청: 659-3410 / (010)4143-5508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253-9550)**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성명: 성수정(로사), 박명화(미카엘라), 이상운(엘리시오), 이미경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원서접수: 11.9(월)~11(수), 660-5161  
참조: <http://dgsunmok.or.kr>

2016년 **신안다이어리**  
보다 세련되고 슬림한 사이즈의  
2016년도 신안다이어리가 출시됩니다.

판매: 1만 원 (선 주문 시 9천 원) / 예약: 11.2(월)~20(금)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7~9

**2016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6년도 대구주보 광고접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사전서류접수: 11.9(월)~19(목),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 1차 순번추첨: 11.23(월) 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2차 순번추첨: 11.23(월) 13:00 (당일 서류 제출 업체 대상)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 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업체는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 추천서 제출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접수일부터 익일까지)

자리배정을 문화홍보실에 일임하는 **위임신청제**는 접수 당일  
광고 신청 배정 후 남는 자리에 **사전서류접수 순**으로 배정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8~9)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흠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아옥수(아네스) 010-5048-7739

**에플비노기과** www.appleuro.com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의 원장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오로걸성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코리아알트만**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결혼평보회사 국민은행 1번 출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코리아 알트만 (4F)**

대표 박복순(오탈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터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시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곡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건물청소(입주, I·T청소(소독), 연간관리 등)  
시설경비, 방역소독, 저수조청소(소독)  
소방시설종합관리,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방과후 학교운영)  
후원전화 **070-8911-6033**

스타일 특유의 가장 캐주얼하다!  
Speech.Kim 스피치킴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검색 김민지(사바나)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CT 및 초음파 검사  
영상투시 및 프롤로 치료  
뇌졸중, 치매, 어지러움증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훈(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체크하세요** 오늘 하루 건강

행문(치질)수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인공관절, 인공심장판, 인공관절, 인공심장판

노성균  
평택서 아우구스티노스  
신경통, 대우이파트 앞  
**959-7175**